

‘주민이 주인’ 광주…풀뿌리 지방자치 30년 결실 맺었다

광주시, 96개 전 행정동 주민자치회 전환…정책·예산 직접 결정
풍암·신용·송정 등 ‘기본사회’ 구현…민주주의 새 기준 제시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시가 96개 모든 행정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며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광주의 사례는,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으로 평가받는다.

아래 발맞춰 정부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풍암동은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마을 의회’ 이자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풍암동은 소규모 주민 모임인 ‘통통자치클럽’을 운영하며 주민 5명 이상이 모이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웃 간의 관계망을 복원했다. 이렇게 모인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는 주제로 성장해 주민총회를 마을 축제로 승화시켰다.

특히 풍암동은 주민총회의 문턱을 과감히 낮췄다.

초등학생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아파트 단지와 마트 앞 등 생활 현장 곳곳에 상설 투표소를 설치했다.

그 결과 전체 투표권자 3만2916명 중 4858명이 참여해 14.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테마가 있는 공원’, ‘금당산 심신 치유의 숲’ 등 마을의 미래를 직접 결정했다. 이는

행정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자치 모델을 보여준다.

평균 연령 37.9세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북구 신용동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보안관’이 되어 마을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참여의 폭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순찰하는 ‘반려견 순찰대’까지 구성해 주민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르신에게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세이프스쿨’을 운영하며 세대별 맞춤형 안전 복지를 실현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이 주도해 삶의 안전 기본권을 지켜낸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산구 송정1동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와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마을화폐 ‘마을ON’이 그 중심에 있다. 주민들은 펀딩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화폐가 지역 내 45개 가맹점에서 순환되도록 했다.

송정1동의 실험은 단순히 돈이 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은 마을 공론장에 참여하거나 돌봄 활동을 하면 마을화폐로 보상을 받는다. 경제 활동이 곧 이웃 돌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송정1동은 한발 더 나아가 ‘주민자치 공의 실행법’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마을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자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의 앞선 사례들은 주민자치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사회’의 핵심 동력임

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주민자치는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으로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1일 열린 ‘2025 광주시 자원봉사자대회’에서 정부포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올 한 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공자 67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광산구의회, 지역주택조합 ‘깜깜이 가입’ 피해 막는다

피해예방 조례안 가결…정재봉 구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광산구의회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불모로 짓는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운영과 하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봉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지역주택조합 등 기관신청자 피해예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흔히 ‘지주택’으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약 통장 없이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과장된 홍보나 불투명한 자금 집행, 토지 확보 실패에 따른 기약 없는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분담금만 날리는 등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현재 광산구 관내에서 만 소통과 협약, 우산동 등

7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사업의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는 이른바 ‘묻지마 가입’ 관행에 저항을 거는데 방점을 뒀다.

조례안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제공되는 안내서에 단순한 사업 개요뿐만 아니라 토지 확보율에 따른 사업 자연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 탈퇴 시 환불 규정 등 가입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주민의 알 권리 보장해 ‘깜깜이 가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주민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히 숙고 할 수 있도록 필수 확인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교육 자료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구제 방안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재봉 의원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일부 부도덕한 조합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양극화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거 시장을 조성하는 최소한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겨울철 불청객 ‘미세먼지’ 문자로 알려드려요”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비스 가입 독려…홈페이지·전화 신청

난방 연료 사용이 늘고 대기 정체 현상이 잦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광주시가 미세먼지 위험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기동화 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질 정보 문자서비스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광주 지역 11곳에 설치된 대기측정소를 통해 24시간 공기질을 감시하고 있다.

집집된 데이터는 에어코리아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지만, 능동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별도의 문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문자를 발송한다.

정부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발령된 구체적인 시각과 경보 단계, 그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 요령까지 상세히 담고 있는 특징이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 내 ‘대기질 정보 SMS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은 연구원으로 전화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공급업체 모집

17~19일 신청…내년 1월 협약

광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제공할 담례품 공급업체 신규 발굴에 나선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담례품 구성을 분석해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기간 내 시청 2층 자치 행정과(빛고을사랑팀)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제안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과 공고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내년 1월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을 공급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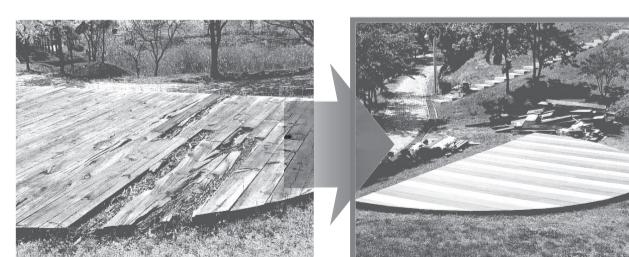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불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